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2층

전화 02)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org>

전자우편 admin@minbyun.or.kr

문서번호 : 19-10-선거협오표현대응TF-02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금태섭 의원실

담당 : 미디어언론위원회·소수자인권위원회 공직선거 협오표현 대응 TF / 장길완 간사
(010-7750-9413, femigilwoan@minbyun.or.kr)

제목 : [보도자료] 2020 총선 D-180일, <공직선거에서의 협오표현 대응에 관한 의견서>
발표 / 10월 21일(월) 9:30, 국회 정론관

전송일자 : 2019. 10.21.(월)

전송매수 : 총 4매 (의견서 별첨)

[보도자료]

2020총선 D-180일,

<공직선거에서의 협오표현 대응에 관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그간 ‘민주주의의 장’이라 불리는 공직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과 (예비) 후보자들의 협오표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상황이 다양성과 인권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0년 총선에서는 협오표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 기관들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2. 오늘 10월 21일(월) 민변은 <공직선거에서의 협오표현 대응에 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 를 작성하여 국회 정론관에서 금태섭 의원실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의견서는 선거 과정에서의 협오표현의 문제점을 밝히면서 선거에서의 협오표현의 특수성, 유형에 따른 규제방안,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각 정당 및 언론의 역할과 중장기적인 입법과제에 대해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작성에는 민변의 미디어언론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일반 회원들로 구성된 공직선거 혐오표현 대응 TF가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3. 민변은 선거과정에서 혐오표현이 공공연하게 유통될 것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 국가기관과 언론, 그리고 각 정당이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혐오표현은 단순히 '사소한 감정'에서 표출되는 것이 아닌, 성별, 인종, 국적, 장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과 적대감을 표출하는 일련의 행위이며, 이는 사회적 소수자를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며 나아가 소수자들의 공론장의 참여기회를 박탈하기에 '공정한' 선거 운영을 저해시킵니다.

4. 앞으로 다가올 2020년 총선에서 각 정당과 (예비) 후보자가 선거 상에서 소수자를 표적으로 공개적인 증오·차별선동, 왜곡·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오표현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각 기관은 아래와 같이 책임있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를 진정으로 민주주의 축제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 명확한 입장 표명과 사전 예방 활동, ▲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국제 동향 파악과 국내 상황 조사, 그리고 ▲ 현행 제도 상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수사의뢰를 해야합니다.

- 각 정당에서는 혐오표현 없는 선거를 위한 ▲ 자발적 결의와 입장표명, ▲ 윤리규정에 혐오표현 금지 명문화, ▲ 혐오표현을 하는 (예비) 후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공천 배제) 등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국회에서는 ▲ 국회의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 윤리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징계 활성화, ▲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령 개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등 혐오없는 선거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입법 활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각 언론사 역시도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 바탕을 둔 공정 보도의 시각에서 ▲ 상세한 심의기준의 마련과 ▲ 언론을 통한 혐오표현의 재생산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보도기준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 또한 중장기적인 입법과제로 ▲ 공직선거법상 혐오 선동 및 타인의 명예훼손 금지 조항의 신설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가칭) 혐오표현심의위원회 등의 조직을 신설하고, ▲ 기타 적극적 조치(혐오표현이 담긴 선거공보 등의 내용 삭제 요청, 혐오표현을 담은 선거 홍보물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등)도 검토 되어야 합니다.

5.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 의견서는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의 면담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며, 국회의장, 각 정당, 각 언론사 등에도 전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변은 2020년 총선이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혐오없는 선거를 만들기 위한 각 기관의 책임있는 조치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입니다.

6. 많은 보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의견서](#)

“[D-6개월] 2020총선, 혐오없는 선거를 위한 제언” 기자회견

- 일시 : 2019. 10. 21.(월) 오전 9: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금태섭 의원실

- 진행 순서
 - 사회 : 김동현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언1. 국회의원 금태섭
 - 발언2. 의견서 작성 취지 및 배경
박한희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
 - 발언3. 중앙선관위, 정당, 언론기관 등 각 기관에 대한 제언
류신환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위원)
 - 발언4. 연대발언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2019년 10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